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23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1월 9일 (음력 11월 23일) 화요일

최대 오리 산지 나주서 10일 만에 또 AI 발생

나주 산포면 육용오리 농장 H5형 AI항원 검출...7만마리 긴급 살처분

전국 총 11건 중 영암 4건·고흥 2건·강진 1건·나주 1건 '고병원성'

국내 최대의 오리 산지인 전남 나주에서 10일 만에 또다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오리 7만 마리가 긴급 살처분됐다.

8일 나주시에 따르면 전남 나주시 산포면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오리 10마리가 폐사했다는 의심 신고가 접수돼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

됐다. 간이키트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이 농장은 사조화인코리아 계열로 사육 중인 오리 1만3500마리를 긴급 살처분했다.

방역 당국은 해당 농가에서 채취한 시료를 국립축산검역본부로 보내 고병원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또 AI확산 저지를 위해 이날 오후 해당

농가로부터 3km 이내 방역대에 소재한 농가 5곳에서 사육 중인 오리 5만3500마리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

이로써 나주에서는 지난해 12월29일 공산면 종오리 농장에서 AI가 처음으로 발생해 고병원성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두 번째 AI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전북 고창에서 첫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옮겨져 들어 전국적으로는 총 11건의 AI가 발생한 가운데 전남에서는 영암 4건, 고흥 2건, 강진 1건, 나주 1건 등 총 8건이 고병원성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종오리 2만2500마리, 육용오리 21만4041마리, 닭(육계) 13만4116마리 등 총 37만6577마리가 살처분됐다.

전국 최대의 닭·오리 사육지인 나주 지역은 이날 현재 42농가에서 오리 56만4000마리와 64농가에서 닭 460만4000마리를 사육 중이다.

김정현 기자



이런들 어떠랴

국인의당 분당이 개칭되고 있다. 국민의당 통합과 비례대표는 지난 3일 통합 공식 논의 창구인 '통합추진 협의체 출범식'을 열고 다음달까지 제3차력을 이루려는 통합산당 창당을 원료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놨다.

협의체 구성원인 이태규 의원은 1차 회의에 참석한 후기자들과 만나 "그쪽(비례대표)으로 통합을 결정하면 이쪽(국회의원)은 당은 없어진다"며 "통합에 합류하지 않으면 의원직은 유지하되 무소속으로 남게 된다"고 전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모임인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도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통합 반대파 중심의 개혁산당 창당 검토라는 뜻을 밝혔다. 합당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등 전략대회 저지에도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세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자료사진=뉴스시스



분주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남북 고위급회담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경기 수원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서 관계자들이 이산가족 관련 문의 전화를 접수하고 있다. 관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예정인 이번 고위급회담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이산가족,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에 대해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전남 내일까지 눈 예보...체감온도 '뚝'

광주와 전남지역에 눈 소식과 함께 매서운 추위가 예고됐다.

8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전에 그친 뒤 밤부터 눈 또는 비가 오겠으며 9일 새벽까지 이어지겠다. 예상 적설량은 광주와 전남북부지역 1~3cm다. 오는 9일은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

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북쪽을 지나가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져 밤부터 서해안에 눈이 오겠다.

특히 찬 공기가 남하하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흑산도와 흥도 서해5도에는 이날 밤, 거문도·초도, 무안·진도·신안(흑산면 제

의)·목포·영광·함평·완도·해남·여수·고흥에는 9일 새벽을 기준으로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다.

10일에는 전남 동부 남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눈이 오겠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며 "오늘 남해서부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개(犬)지명 27곳 전국 최다 전남 스토리텔링 유래 다양

무술년(戊戌年)은 개띠의 해, 전남이 개(犬)와 관련된 지명을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가진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그 유래가 눈길을 끌고 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2018년 무술년 개의 해를 맞아 전국의 지명을 분석한 결과, 개와 관련된 고시된 지명은 총 101개로 전남이 27개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여수2개, 나주2개 구례1개, 고흥3개, 보성1개, 화순4개, 해남1개, 영암1개, 무안1개, 영광2개, 장성2개, 진도2개, 신안5개 등이다.

지명유래도 다양하고 재미있다.

신안군 비금면 수치리 개섬, 일명 주구도(走狗島), 섬 모양이 달리기 개처럼 생겼다 해서, 개섬 또는 주구도라 부른다.

영광군 법성면 화천리 숙구지(宿狗池)는 마을의 지형이 잠자고 있는 개처럼 생겼다 해서 숙구지라 부른다.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구족도(狗足島)는 마을의 지형이 개의 발모양으로 생겼다 해 개발섬이라 하고 한자를 표기로 구족도라 부르고 있다.

고흥군 포두면 남상리익금(益盆)은 마을 앞에 모래가 많이 쌓이는 해안이 있어 '장사리'라 부르다가, 어촌의 지명으로는 부르기 어렵지 않다고 해 뒷산 지형이 육구미(六狗尾·여섯마리 개의 꼬리)가 모이는 모양이라는 뜻에서 육구미라 했으나 개 모양에 의한 지명으로 인제가 배출되지 않아 발음이 비슷한 익금이라 칭하게 됐다고 한다.

화순군 이서면 도석리 전도(傳道)는 마을의 뒷산이 개(狗) 모양인데, 개 앞으로 길을 내주면 좋다해 견도(犬道)라 불리던 것이 후에 발음의 변화로 전도로 되었다 한다.



안철수



박지원



추미애

보호와 사랑으로 행복을 찾아주세요

행복한 어린이가 나라의 미래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